



1등급을
원한다면
풀어라!

**2019 EBS 수능특강·수능완성
문법연계기출모의고사**

최인호 · 박석준

FINAL

국어 영역(문법)

성명

수험 번호

홀수형

- 연계 교재에서 문제로 출제된 개념을 복습할 수 있는 수능·평가원 기출문항들을 영역별·하위 개념별로 배치하였습니다. (음운론, 형태론, 통사론, 중세 국어 4개 영역)
- 난이도를 고려하여 배점을 재조정하였으므로, 배점은 원래의 문항에 부여된 배점과 다를 수 있습니다.
- 각 문항 상단에 출처와 연계 교재 문항의 쪽수, 번호를 표기하여 향후 복습 및 심화 학습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1~15] 음운론

출처: 15년 9월 A형
연계: 수능완성 163p 11번

1. <보기>의 ㉠에 들어갈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보 기>

학 생 : ‘식물’이 [싱플]로 발음되는데, 두 자음이 만나서 발음될 때 조음 위치나 방식 중 무엇이 바뀐 것 인가요?
선생님 : 아래의 자음 분류표를 보면서 그 답을 찾아봅시다.

조음 위치 \ 조음 방식	양순음	치조음	연구개음
파열음	ㅂ	ㄷ	ㄱ
비음	ㅁ	ㄴ	ㅇ

이 표는 국어 자음을 조음 위치와 조음 방식에 따라 분류한 자음 체계의 일부입니다. ‘식’의 ‘ㄱ’이 ‘물’의 ‘ㅁ’ 앞에서 [ㅇ]으로 발음되지요. 이와 비슷한 예들로는 ‘입는[임는]’, ‘뜯는[띯는]’이 있는데, 이 과정에서 무엇이 달라졌나요?
학 생 : 세 경우 모두 두 자음이 만나서 발음될 때, ㉠ 이가 변했네요.

- ① 앞 자음의 조음 방식
- ② 뒤 자음의 조음 방식
- ③ 두 자음의 조음 방식
- ④ 앞 자음의 조음 위치
- ⑤ 뒤 자음의 조음 위치

출처: 15년 수능 A형
연계: 수능특강 238p 3번, 수능완성 48p 2번

2. 다음의 ㉠에 해당하는 것을 ㉡~㉤ 중에서 고른 것은?

<보 기>

[모음의 변동]
단모음으로 끝나는 어간과 단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결합하면 모음의 변동이 자주 일어난다. 모음 변동의 결과 두 개의 단모음 중 하나가 없어지기도 하고, ㉠ 두 개의 단모음이 합쳐져 이중 모음이 되기도 하며, 단모음 사이에 반모음이 첨가되기도 한다.

[모음 변동의 사례]
㉡ 기+어 → [기여]
㉢ 살피+어 → [살피]
㉣ 배우+어 → [배워]
㉤ 나서+어 → [나서]

-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

출처: 18년 6월
연계: 수능특강 239p 4번, 수능완성 139p 11번

3. <보기>를 바탕으로 음운 변동 사례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보 기>

교체, 탈락, 축약, 첨가의 음운 변동이 일어나는 경우 음운 개수의 변화가 나타나기도 한다. 먼저 ‘집일[짐닐]’은 첨가 및 교체가 일어나 음운의 개수가 늘었다. 그런데 ‘닭만[당만]’은 탈락 및 교체가 일어나 음운의 개수가 줄었고, ‘뜻하다[뜨타다]’는 교체 및 축약이 일어나 음운의 개수가 줄었다. 한편 ‘말는[만는]’은 교체가 두 번 일어나 음운의 개수가 변하지 않았다.

- ① ‘흙하고[흐카고]’는 탈락 및 축약이 일어나 음운의 개수가 두 개 줄었군.
- ② ‘저녁연기[저녕년기]’는 첨가 및 교체가 일어나 음운의 개수가 두 개 늘었군.
- ③ ‘부엌문[부엌문]’과 ‘볶는[봉는]’은 교체가 한 번 일어나 음운의 개수가 변하지 않았군.
- ④ ‘엷지[언찌]’와 ‘뭉고[물꼬]’는 교체 및 축약이 일어나 음운의 개수가 각각 한 개 줄었군.
- ⑤ ‘넓네[널레]’와 ‘맑는[방는]’은 탈락 및 교체가 일어나 음운의 개수가 각각 두 개 줄었군.

출처: 11년 9월

연계: 수능특강 234p 2번, 301p 11번

8. <보기>는 겹받침 뒤에 자음으로 시작되는 조사나 어미가 연결될 때, 겹받침의 자음 중 발음되는 것을 [] 속에 적은 '표준 발음' 자료이다. 이를 바탕으로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 ㉠ 맑-도록 [기] 늡-지 [기] 읽-지 [기]
- ㉡ 맑-게 [리] 늡-고 [리] 읽-거나 [리]
- ㉢ 닭-같이 [기] 흙-과 [기] 훑-과 [기]
- ㉣ 얹-도록 [리] 넓-지 [리] 밟-도록 [비]
- ㉤ 얹-게 [리] 넓-고 [리] 밟-게 [비]

- ① ㉠, ㉡를 보니, 용언 어간의 '리'의 발음은 'ㄷ'이나 'ㅈ'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올 때와 '기'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올 때가 서로 다르군.
- ② ㉠, ㉢를 보니, '리'의 발음은 'ㄷ'이나 'ㅈ'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올 때와 '기'으로 시작하는 조사가 올 때가 서로 같군.
- ③ ㉡, ㉣를 보니, '리'의 발음은 '기'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올 때와 '기'으로 시작하는 조사가 올 때가 서로 다르군.
- ㉣, ㉤를 보니, 용언 어간의 '래'의 발음은 '얹-', '넓-'의 경우와 '밟-'의 경우가 서로 다르군.
- ㉣, ㉤를 보니, 동일 용언 어간의 '래'의 발음은 'ㄷ'이나 'ㅈ'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올 때와 '기'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올 때가 서로 다르군.

출처: 15년 9월 B형

연계: 수능특강 234p 2번, 301p 11번

9. <보기>의 [가]에 들어갈 말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선생님 : 오늘은 겹받침 '래'의 표준 발음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합시다. 우선 '래'와 관련한 발음 원칙을 정리한 내용을 잘 보세요.

- ㉠ 겹받침 '래'은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각각 [ㄱ]으로 발음한다.
- ㉡ 겹받침 '래'은 모음으로 시작된 조사나 어미, 접미사와 결합되는 경우 뒤의 'ㄱ'만을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한다.
- ㉢ 어간의 겹받침 '래' 뒤에 결합되는 어미의 첫소리 'ㄱ, ㄷ, ㅌ, ㅈ'은 된소리로 발음한다.

선생님 : 자, 그러면 겹받침 '래'을 갖는 말의 표준 발음이 ㉠~㉢ 중 어느 발음 원칙과 관련되는지 말해 봅시다. 모음의 장단(長短)은 고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학 생: _____ [가]

- ① '삶과 자연'에서 '삶과'의 표준 발음이 [삼과]인 것은 ㉠에 따른 것입니다.
- ② '국수를 삶고'에서 '삶고'의 표준 발음이 [삼꼬]인 것은 ㉠, ㉢에 따른 것입니다.
- ③ '바람직한 삶'에서 '삶'의 표준 발음이 [삼]인 것은 ㉠에 따른 것입니다.
- ④ '삶에 대한 의지'에서 '삶에'의 표준 발음이 [살메]인 것은 ㉡에 따른 것입니다.
- ⑤ '나의 삶만'에서 '삶만'의 표준 발음이 [삼만]인 것은 ㉡에 따른 것입니다.

출처: 16년 6월 B형

연계: 수능특강 201p 3번, 236p 5번

10. <보기>에 따라 표준 발음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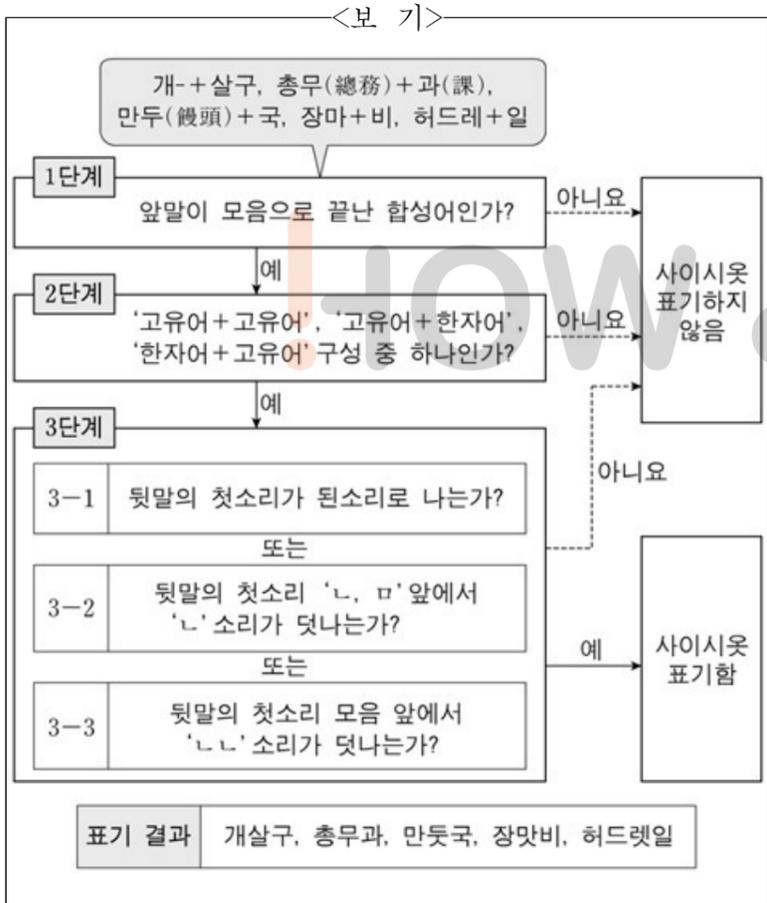
<표준 발음법의 '된소리되기' 중 일부>

- ㉠ 어간 받침 'ㄴ(ㄴ), ㄹ(ㄹ)' 뒤에 결합되는 어미의 첫소리 'ㄱ, ㄷ, ㅌ, ㅈ'은 된소리로 발음한다.
- ㉡ 어간 받침 '래, ㄹ' 뒤에 결합되는 어미의 첫소리 'ㄱ, ㄷ, ㅌ, ㅈ'은 된소리로 발음한다.
- ㉢ 관형사형 '-(으)ㄹ' 뒤에 연결되는 'ㄱ, ㄷ, ㅌ, ㅈ'은 된소리로 발음한다. '-(으)ㄹ'로 시작되는 어미의 경우도 이에 준한다.

- ① '(가슴에) 품을 적에'와 '(며느리로) 삼고'에서의 된소리되기는 모두 ㉠에 따른 것이다.
- ② '(방이) 넓거든'과 '(두께가) 얹을지라도'에서의 된소리되기는 모두 ㉡에 따른 것이다.
- ③ '(신을) 신졌네요'와 '(땅을) 밟지도'에서의 된소리되기는 모두 ㉢에 따른 것이다.
- ④ '(남들이) 비웃을지언정'과 '(먼지를) 훑던'에서의 된소리되기는 각각 ㉠, ㉡에 따른 것이다.
- ⑤ '(물건을) 없지만'과 '(자리에) 앉을수록'에서의 된소리되기는 각각 ㉠, ㉢에 따른 것이다.

출처: 14년 9월 B형
연계: 수능특강 240p 5번

11. <보기>는 사이시옷 표기 조건에 관한 학습 활동지의 일부이다. 학습한 결과를 정리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개+살구' 구성은 1단계를 만족시키지 못하므로 '개살구'라고 쓴다.
- ② '총무+과' 구성은 2단계를 만족시키지 못하므로 '총무과'라고 쓴다.
- ③ '만두+국' 구성은 1, 2, 3-1단계를 만족시키므로 '만두국'이라고 쓴다.
- ④ '장마+비' 구성은 1, 2, 3-2단계를 만족시키므로 '장맛비'라고 쓴다.
- ⑤ '허드레+일' 구성은 1, 2, 3-3단계를 만족시키므로 '허드렛일' 이라고 쓴다.

출처: 16년 6월 A형
연계: 수능특강 286p 1번

12. <보기>의 [가]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선생님 : 어떤 음운이 주위에 있는 다른 음운의 영향을 받아 그것과 동일한 음운으로 바뀌거나, 조음 위치 또는 조음 방법이 그것과 같은 음운으로 바뀌는 현상을 동화라고 합니다. 그럼 ㉠~㉤ 중에서 하나를 골라 그것이 동화인지 아닌지 판단해 보고 그 이유를 말해봅시다.

㉠ 듣+고 → [듣꼬] ㉡ 놓+고 → [노꼬]

㉢ 훔+네 → [훔레] ㉣ 뽕+느라 → [뽕느라]

㉤ 넓+더라 → [널떠라]

학 생: _____ [가] _____

- ① ㉠은 동화입니다. 왜냐하면 'ㄱ'이 'ㄷ'의 영향을 받아 'ㄱ'과 같은 위치에서 소리 나는 'ㄱ'으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 ② ㉡은 동화입니다. 왜냐하면 'ㅎ'이 'ㄱ'의 영향을 받아 'ㅎ'과 거센소리라는 점이 같은 'ㅋ'으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 ③ ㉢은 동화입니다. 왜냐하면 'ㄴ'이 'ㄷ'의 영향을 받아 'ㄷ'과 같은 위치에서 소리 나는 'ㄷ'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 ④ ㉣은 동화입니다. 왜냐하면 'ㄷ'이 'ㄴ'의 영향을 받아 'ㄴ'과 콧소리라는 점이 같은 'ㄹ'으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 ⑤ ㉤은 동화입니다. 왜냐하면 'ㄷ'이 'ㄷ'의 영향을 받아 'ㄷ'과 동일한 소리인 'ㄷ'으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출처: 10년 6월
연계: 수능특강 233p 1번

13. '못한'을 표준 발음으로 입을 때, <보기>의 ㉠, ㉡에 해당하는 변동 유형을 바르게 짝지은 것은?

<보 기>

• 음운 변동은 다음과 같이 유형화할 수 있다.

변동 이전	변동 이후
㉠ XaY	→ XbY (교체)
㉡ XY	→ XaY (첨가)
㉢ XabY	→ XcY (축약)
㉣ XaY	→ XY (탈락)
㉤ XabY	→ XbaY (도치)

• '못한' → [㉠] → [㉡]의 과정을 거쳐 발음된다.

- | | |
|----------|----------|
| ㉠ ㉡ | ㉢ ㉣ |
| ① a c | ② a d |
| ③ b d | ④ b e |
| ⑤ c e | |

출처: 14년 수능 A형
연계: 수능특강 237p 1번

14. 다음 ㉠~㉣의 음운 변동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 빗 → [빔], 앞 → [압], 안팎 → [안팍]
- ㉡ 약밥 → [약뺨], 잡다 → [잡따]
- ㉢ 놓지 → [노치], 만형 → [마형]

- ① ㉠과 ㉡은 음절 중성에 놓인 자음이 바뀌는 변동이다.
- ② ㉠은 거센소리를 예사소리로, ㉢은 거센소리를 된소리로 바꾸는 변동이다.
- ③ ㉠과 ㉢의 변동이 모두 일어난 예로 ‘따뜻하다 → [따뜨타다]’를 들 수 있다.
- ④ ㉡과 ㉢의 변동은 뒤의 자음이 앞의 자음에 동화된 것이다.
- ⑤ ㉡은 음운의 첨가에, ㉢은 음운의 축약에 속한다.

출처: 17년 수능
연계: 수능완성 188p 11번

15. <보기>의 (가), (나)를 중심으로 음운 변동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3점]

<보 기>

국어의 음운 변동은 교체, 탈락, 첨가, 축약으로 구분된다. 이 중에는 음절의 중성과 관련된 음운 변동이 있다.

(가) 음절의 중성에 마찰음, 파찰음이 오거나 파열음 중 거센소리나 된소리가 올 경우, 모두 파열음의 예사소리로 교체된다. 이는 중성에서 발음될 수 있는 자음의 종류가 제한됨을 알려 준다.

(나) 또한 음절의 중성에 자음군이 올 경우, 한 자음이 탈락한다. 이는 중성에서 하나의 자음만이 발음될 수 있음을 알려 준다.

- ① ‘꽃힌 [꼬친]’에는 (가)에 해당하는 음운 변동이 있다.
- ② ‘뿔이 [목씨]’에는 (나)에 해당하는 음운 변동이 있다.
- ③ ‘비웃 [비온]’에는 (나)에 해당하는 음운 변동이 있다.
- ④ ‘얇고 [안코]’에는 (가), (나) 모두에 해당하는 음운 변동이 있다.
- ⑤ ‘얇고 [읍꼬]’에는 (가), (나) 모두에 해당하는 음운 변동이 있다.

[16~28] 형태론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출처: 17년 수능
연계: 수능완성 240p 13번

출처: 05년 9월
연계: 수능특강 242p 2번
16. <보기>의 밑줄 친 부분에 해당하는 예로 적절한 것은?

<보 기>
국어의 단어 형성 방식을 보면, 실질적인 의미를 갖는 어근들끼리 만나 새말을 만들기도 하지만, 특정한 뜻을 더하는 접사가 어근 앞에 붙어 새말을 만들기도 한다. 전자의 예로는 어근 '날다'가 어근 '가다'를 만나 '날아가다'를 만드는 것을 들 수 있고, 후자의 예로는 '뜻'이 어근 '사과' 앞에 붙어 '덜 익은'의 뜻을 더하면서 '뜻사과'를 만드는 것을 들 수 있다.

- ① '강'은 '마르다' 앞에 붙어 '심하게'의 뜻을 더하면서 '강마르다'를 만든다.
- ② '첫'은 '사랑' 앞에 붙어 '처음의'의 뜻을 더하면서 '첫사랑'을 만든다.
- ③ '새'는 '색시' 앞에 붙어 '새로운'의 뜻을 더하면서 '새색시'를 만든다.
- ④ '얇'은 '보다' 앞에 붙어 '얇게'의 뜻을 더하면서 '얇보다'를 만든다.
- ⑤ '군'은 '밤' 앞에 붙어 '구운'의 뜻을 더하면서 '군밤'을 만든다.

국어에서 동사나 형용사에 붙어 새로운 단어를 형성하는 접미사는 다양한 문법적 특징을 지니고 있다. 그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접미사는 동사나 형용사에 붙어 새로운 어간을 형성한다. 예를 들면, '눅다'의 어근 '눅-'에 접미사 '-이-'가 붙어 새로운 어간 '눅이-'가 형성된다. 이렇게 만들어진 '눅이다'의 어간 '눅이-'는 '눅다'의 어간 '눅-'과 구별된다. 둘째로, 접미사는 동사나 형용사의 어근에 붙어 품사를 바꾸기도 한다. 예를 들면, 명사 '떡이'나 '넓이'는 각각 동사와 형용사의 어근에 접미사 '-이'가 붙어 형성된 단어이다. 이때 '떡이'와 '넓이'의 '떡-'과 '넓-'은 서술어로 기능하지 못한다. 셋째로, 접미사는 동사나 형용사에 붙어 사동의 의미를 더하기도 한다. 예를 들면, 동사 '익다'와 '먹다'의 어근에 각각 접미사 '-히-'와 '-이-'가 붙어 형성된 '익히다'와 '먹히다'는 '고기를 익히다.'와 '아이에게 밥을 먹이다.'에서와 같이 사동의 의미를 가진다. 넷째로, 접미사는 타동사에 붙어 피동의 의미를 더하기도 한다. 예를 들면, '안다'의 어근 '안-'에 접미사 '-기-'가 붙어 형성된 '안기다'는 '아기가 엄마한테 안기다.'와 같이 피동의 의미를 가진다. 이때 피동을 나타내는 접미사는 '눅다', '식다'와 같은 자동사에는 결합하지 않는다.

한편, 하나의 접미사가 모든 동사나 형용사에 자유롭게 결합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접미사 '-히-'는 '읽다'의 어근 '읽-'에 붙어 '읽히다'를 만들 수 있지만, '살다'의 어근 '살-'에는 붙지 못한다. 어근 '살-'에는 접미사 '-리-'가 붙어 '살리다'가 형성된다. 또한 어근과 접미사 사이에는 다른 형태소가 끼어들 수 없다. 가령, 어근 '읽-'과 접미사 '-히-' 사이에 '-시-'와 같은 선어말 어미가 끼어든 '읽시히-'와 같은 것은 만들어지지 않는다.

17.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보 기>
 ㉠ 달콤한 휴식을 위해 시간을 비워 놓았다.
 ㉡ 아주 높이 나는 새라야 멀리 볼 수 있다.
 ㉢ 마을 앞 공터를 놀이 공간으로 조성했다.
 ㉣ 멀리서 찾아온 손님을 위해 차를 끓였다.
 ㉤ 할아버지께서는 오늘 일찍 오시기 힘들다.

- ① ㉠에서 '비워'의 어간은 '시간이 빈다.'에서 '비다'의 어간과 같다.
- ② ㉡에서 '높이'는 형용사 '높다'의 어근 '높-'에 접미사 '-이'가 붙어 형성된 명사이다.
- ③ ㉢에서 '놀이'는 명사이므로 '놀이' 속의 '놀-'은 서술어로 기능하지 못한다.
- ④ ㉣에서 '끓였다'의 어근에 붙은 접미사 '-이-'는 모든 동사에 자유롭게 결합한다.
- ⑤ ㉤에서 '오시기'는 '오-'와 '-기' 사이에 다른 형태소가 끼어든 것이므로 명사이다.

출처: 14년 수능 B형
연계: 수능완성 57p 2번

18. <보기>의 ㉠, ㉡의 예로 적절한 것은?

<보 기>

‘<한글 맞춤법> 제4장(형태에 관한 것)’의 파생어와 합성어에 대한 표기 규정은 다음과 같이 네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다.

- 파생어이면서 어근의 원형을 밝히어 적는 경우
- 파생어이면서 어근의 원형을 밝히어 적지 않는 경우 ... ㉠
- 합성어이면서 어근의 원형을 밝히어 적는 경우 ㉡
- 합성어이면서 어근의 원형을 밝히어 적지 않는 경우

- | | |
|----------|--------|
| ㉠ | ㉡ |
| ① 길이, 마중 | 무덤, 지붕 |
| ② 무덤, 지붕 | 뒤뜰, 쌀알 |
| ③ 뒤뜰, 쌀알 | 무덤, 지붕 |
| ④ 길이, 무덤 | 뒤뜰, 쌀알 |
| ⑤ 마중, 지붕 | 길이, 쌀알 |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출처: 17년 9월
연계: 수능특강 277p 3번

여러 형태로 이루어진 단어나 여러 단어들로 이루어진 문장은 그 구조를 명확히 파악하기 어렵다. 가령, ‘민물고기’가 합성어인지 파생어인지를 판별하기 어렵고 “언니가 찾던 책이 여기 있구나.”와 같은 문장에서 주어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기 쉽지 않다. 이처럼 복잡한 단어나 문장의 구조를 명확히 파악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으로 직접 구성 요소 분석이 있다.

직접 구성 요소란 어떤 말을 직접 이루고 있는 두 부분으로 나누었을 때 나오는 두 요소이다. 위의 ‘민물고기’에서는 ‘민물’과 ‘고기’가 직접 구성 요소가 된다. 이 분석은 ‘민물’에 대해서도 더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직접 구성 요소를 분석해 보면 한 단어에 합성과 파생 과정이 모두 있는 ‘민물고기’는 파생어가 아닌 합성어임을 알 수 있다.

직접 구성 요소 분석 시에는 특히 두 가지를 고려해야 한다. 첫째, 직접 구성 요소로 분석되는 말이 실제로 존재하는가 하는 점이다. 가령, ‘살얼음’은 ‘살-’과 ‘얼음’으로 분석해야 하는데, 만약 ‘살얼-’과 ‘-음’으로 분석하면 ‘살얼다’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잘못된 분석이 된다. 둘째, 직접 구성 요소들과 그 전체 구성의 의미가 서로 통하는가 하는 점이다. ‘벽돌집’을 직접 구성 요소로 나누면 ‘벽돌’과 ‘집’이 분석된다. 이를 ‘벽’과 ‘돌집’으로 나누면 ‘벽돌로 만든 집’이라는 의미를 갖지 못한다.

19. <보기>는 윗글을 바탕으로 진행된 학습 활동이다.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보 기>

학 생 : ‘민물고기’에 있는 접두사 ‘민-’은 ‘민물고기’의 직접 구성 요소가 아니라, ‘민물’을 직접 구성 요소로 분석할 때 나오는 것이군요. 이제 왜 ‘민물고기’가 파생어가 아니라 합성어인지 알겠어요.

선생님 : 직접 구성 요소 분석에 대해 잘 이해했구나. 그럼 아래의 단어들도 분석해 보자.

㉠ 나들이웃 ㉡ 눈웃음 ㉢ 드높이다

㉣ 집집이 ㉤ 놀이터

- ① ㉠은 그 직접 구성 요소 중 하나가 합성어인 합성어이다.
- ② ㉡은 그 직접 구성 요소 중 하나가 파생어인 합성어이다.
- ③ ㉢은 그 직접 구성 요소 중 하나가 합성어인 파생어이다.
- ④ ㉣은 그 직접 구성 요소 중 하나가 파생어인 파생어이다.
- ⑤ ㉤은 그 직접 구성 요소 중 하나가 합성어인 파생어이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출처: 18년 수능
연계: 수능특강 277p 3번

국어의 단어들은 ㉠어근과 어근이 결합해 만들어지기도 하고 어근과 파생 접사가 결합해 만들어지기도 한다. 어근과 파생 접사가 결합한 단어는 ㉡파생 접사가 어근의 앞에 결합한 것도 있고, ㉢파생 접사가 어근의 뒤에 결합한 것도 있다. 어근이 용언 어간이나 체언일 때, 그 뒤에 결합한 파생 접사는 어미나 조사와 혼동될 수도 있다. 그러나 파생 접사는 주로 새로운 단어를 만든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에 비해 ㉣어미는 용언 어간과 결합해 용언이 문장 성분이 될 수 있도록 해 주고, ㉤조사는 체언과 결합해 체언이 문장 성분임을 나타내 줄 뿐 새로운 단어를 만들지는 않는다. 이 점에서 어미와 조사는 파생 접사와 분명하게 구별된다.

20. 다음 문장에서 ㉠~㉣에 해당하는 예를 찾아 이를 설명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아기장수가 맨손으로 산 위에 쌓인 바위를 깨뜨리는 모습이 멋졌다.

- ① ‘아기장수가’의 ‘아기장수’는 ㉠에 해당하는 예로, 어근 ‘아기’와 어근 ‘장수’가 결합했다.
- ② ‘맨손으로’의 ‘맨손’은 ㉡에 해당하는 예로, 파생 접사 ‘맨-’이 어근 ‘손’ 앞에 결합했다.
- ③ ‘쌓인’의 어간은 ㉢에 해당하는 예로, 파생 접사 ‘-이-’가 어근 ‘쌓-’ 뒤에 결합했다.
- ④ ‘깨뜨리는’은 ㉣에 해당하는 예로, 어미 ‘-리는’이 용언 어간 ‘깨뜨-’와 결합했다.
- ⑤ ‘모습이’는 ㉤에 해당하는 예로, 조사 ‘이’가 체언 ‘모습’과 결합했다.

출처: 15년 9월 A형
연계: 수능완성 190p 15번

21. <보기>의 ㉠의 방식에 따라 형성된 단어로 적절한 것은? [3점]

<보 기>
국어의 단어 형성 방식을 알아보기 위해 한 단어가 아닌 ‘오고 가다’를, 한 단어인 ‘뛰어가다’, ‘오가다’와 비교해 보자.
○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다.
○ 사람들이 바쁘게 뛰어가다.
○ 오가는 사람이 많다.
‘오고 가다’라는 구(句)는 단어 ‘오다’의 어간 ‘오-’에 연결 어미 ‘-고’가 결합하여 ‘가다’와 이어진 것이다. 이러한 방식은 단어 형성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예를 들어, ‘뛰어가다’는 ‘뛰다’와 ‘가다’의 ㉠어간이 연결 어미로 연결되어 형성된 한 단어이다. 한편 ‘오가다’는 어간과 어간이 직접 결합해서 한 단어가 되었다는 점에서 ‘뛰어가다’와 차이가 있다.

- ① 꿈꾸다 ② 돌아서다 ③ 뒤섞다
- ④ 빛나다 ⑤ 오르내리다

출처: 15년 6월 B형
연계: 수능특강 246p 2번, 수능완성 140p 12번, 216p 13번

22. 다음은 띄어쓰기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다. ㉠~㉣의 띄어쓰기가 바르게 된 것은?

문제
다음 문장의 밑줄 친 부분을 맞춤법에 맞게 띄어 써 보자.
• 열심히 살을 ㉠살아가다.
• 주문한 물건을 ㉡받아가다.
• 딸이 엄마를 ㉢답아가다.

확인 사항
• 단어와 단어는 띄어 쓴다.
• 단어는 사전에 표제어로 실린다.
• 보조 용언은 띄어 쓰음 원칙으로 하되 붙여 쓰도 허용한다.
• ‘-아’를 ‘-아서’로 바꿔 쓸 수 있으면 ‘본용언+본용언’ 구성이고, 그렇지 않으면 한 단어이거나 ‘본용언+보조 용언’ 구성이다.

문제 해결 과정

```

    graph TD
      A["㉠ 살아가다 ㉡ 받아가다 ㉢ 답아가다"] --> B{"사전에 표제어로 실렸나요?"}
      B -- 예 --> C["㉠"]
      B -- 아니요 --> D{"'-아'를 '-아서'로 바꿔 쓸 수 있나요?"}
      D -- 예 --> E["㉡"]
      D -- 아니요 --> F["㉢"]
    
```

	㉠	㉡	㉢
①	살아가다	받아 가다	답아 가다 또는 답아가다
②	살아가다	받아 가다 또는 받아가다	답아 가다
③	살아가다	받아가다	답아 가다
④	살아 가다	받아 가다 또는 받아가다	답아가다
⑤	살아 가다	받아가다	답아 가다 또는 답아가다

출처: 14년 6월 B형
연계: 수능특강 209p 2번

23. 다음의 탐구 과정에서 ㉠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자료	• (선생님께) "아니요, 모르겠습니다." • (친구에게) "아니, 몰라."	• "나는 주인공이 아니오."
의문점	'아니오'의 '오'와 '아니오'의 '오'는 어떠한 차이가 있을까?	
문제 탐구	자료에서 '아니오'의 쓰임을 확인한다. ☞ 뒷사람이 묻는 말에 부정으로 대답할 때 쓰이는데, '아니'에 '오'가 붙어서 된 말이다.	자료에서 '아니오'의 쓰임을 확인한다. ☞ 보어층 취하는 서술어로 쓰이는데, '아니'에 '-오'가 붙어서 된 말이다.
	자료와 다음 사례를 통해 '오'의 문법적 특성을 알아본다. • 뭘 할까요? • 뭘 할까? • 어서오, 빨리오. ☞ 단어, 어말 어미 등에 붙어 높임의 뜻을 더해 주는 보조사인데, '오'가 빠지더라도 문장이 성립한다.	자료와 다음 사례를 통해 '-오'의 문법적 특성을 알아본다. • 얼마나 기쁘오? • 얼마나 기쁘니? • 일단 멈추시오. ☞ ㉠
적용	"그러면 안 되□."의 □ 안에는 '오'가 들어간다.	

- ① 어간에 붙는다.
- ② 선어말 어미에 붙는다.
- ③ 평서문에는 쓰이지 않는다.
- ④ '-오'가 빠지면 문장이 성립하지 않는다.
- ⑤ 상대방을 보통으로 높이는 종결 어미이다.

출처: 16년 9월 B형
연계: 수능특강 209p 2번

24. <자료>의 밑줄 친 발음 표시 부분을 맞춤법에 맞게 표기할 때에 적용되는 원칙을 <보기>에서 찾아 바르게 짝지은 것은?

<자 료>

㉠ 이것은 유명한 책이 [아니오].
㉡ 영화 구경 [가지오].
㉢ 이것은 [설탕이오], 저것은 소금이다.

<보 기>

- 용언의 어간과 어미는 구별하여 적는다.
- 종결형에서 사용되는 어미 '-오'는 '오'로 소리 나는 경우가 있더라도 그 원형을 밝혀 '오'로 적는다. …… ㉠
이리로 오시오. (○) 이리로 오시오. (×)
- 연결형에서 사용되는 '이오'는 '이요'로 적는다. …… ㉡
이것은 책이오, 저것은 붓이다. (○)
이것은 책이오, 저것은 붓이다. (×)
- 어미 뒤에 덧붙는 조사 '요'는 '요'로 적는다. …… ㉢
읽어 읽어오 먹을게 먹을게오

- ① ㉠-a ② ㉠-b ③ ㉡-b ④ ㉢-a ⑤ ㉢-c

출처: 14년 9월 A형
연계: 수능완성 163p 12번

25. <보기>를 바탕으로 어미를 분류한 것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단어의 끝에 들어가는 어말어미는 그 기능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 ㉠ 문장을 끝맺어 주는 기능을 하는 어미.
예) '동생은 책을 읽었다.'의 '-다'
- ㉡ 두 문장을 연결해 주는 기능을 하는 어미.
예) '이것은 장미꽃이고, 저것은 국화꽃이다.'의 '-고'
- ㉢ 용언을 명사, 관형사, 부사처럼 기능하게 하는 어미.
예) '내일 입을 책을 미리 준비해라.'의 '-을'

- ① '지금쯤 누나는 집에 도착했겠구나.'의 '-구나'는 ㉠에 해당한다.
- ② '할아버지께서는 어디 갔다 오시지?'의 '-지'는 ㉠에 해당한다.
- ③ '이렇게 일찍 가는 이유가 뭐니?'의 '-는'은 ㉡에 해당한다.
- ④ '형은 밥을 먹었으나, 누나는 밥을 먹지 않았다.'의 '-으나'는 ㉡에 해당한다.
- ⑤ '지금은 운동하기에 좋은 시간이다.'의 '-기'는 ㉢에 해당한다.

출처: 09년 6월
연계: 수능특강 246p 1번

26. <보기>는 동화의 첫 부분이다. ()의 조사를 선택한 후, 조사의 선택 기준에 대해 토의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 옛날 어느 마을에 한 할아버지(가/는) 살고 있었습니다. ㉡ 할아버지(가/는) 동물을 좋아했습니다. 특히 개와 고양이를 귀여워했지요. ㉢ 그러나 돼지(를/는) 무척 싫어했습니다. ㉣ 할아버지에게(는/도) 말썽꾸러기 돼지 한 마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 말썽꾸러기 돼지(가/는) 다른 동물들과 달랐습니다. 개처럼 말을 잘 듣지도 않았고, 고양이처럼 애교가 많지도 않았습니다.

- ① ㉠에서는 주어 '할아버지'가 이야기에서 처음 나타난다는 사실을 생각해야 해.
- ② ㉡에서는 주어 '할아버지'가 앞 문장에 나타났다는 사실을 생각해야 해.
- ③ ㉢에서는 목적어 '돼지'를 다른 동물과 대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야 해.
- ④ ㉣에서는 앞 문장에 '할아버지'가 '돼지'를 싫어한다는 내용이 있다는 걸 생각해야 해.
- ⑤ ㉤에서는 앞 문장에 '말썽꾸러기 돼지'가 나오고, 뒤 문장에 다른 동물과의 차이점이 소개된다는 것을 생각해야 해.

출처: 15년 6월 A형
연계: 수능특강 246p 1번

27. 다음의 밑줄 친 부분에 해당하는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국어의 조사 중에는 결합하는 앞말과 다른 말과의 문법적인 관계를 표시하는 격 조사와 특별한 뜻을 더해 주는 보조사가 있다. 격 조사는 특정한 문장 성분에만 쓰인다. 가령 주격 조사는 주어에, 목적격 조사는 목적어에 쓰인다. 반면 보조사는 하나의 문장 성분에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여러 문장 성분에 쓰일 수 있다.

- ① '삼촌이 밤에만 글을 썼다.'에서의 '만'.
- ② '선수들이 오늘은 간식을 먹었다.'에서의 '은'.
- ③ '내가 친구한테 가방을 선물했다.'에서의 '한테'.
- ④ '아이들이 유치원에서 악기도 연주한다.'에서의 '도'.
- ⑤ '누나가 일기를 책으로까지 만들었다.'에서의 '까지'.

출처: 12년 6월
연계: 수능특강 246p 1번

28. <보기>를 참고할 때, 밑줄 친 '들'의 성격이 다른 하나는?

<보 기>

- 들⁵ 【조사】 (체언, 부사어, 일부 연결 어미, 합성 동사의 선행 요소 및 문장의 끝 따위의 뒤에 붙어) 그 문장의 주어가 복수임을 나타내는 보조사.
- -들⁹ 【접사】 (셀 수 있는 명사나 대명사 뒤에 붙어) '복수(複數)'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

어머니 : ㉠어서들 오세요. 차를 준비할 동안 거실에서 말씀들 나누고 계세요.
 손님 1 : 좀 전에 ㉡밖에서들 마시고 왔으니 그냥 앉으세요.
 손님 2 : 그래요. 그런데 ㉢아이들은 어디 보냈나요?
 어머니 : 옷 갈아입는다고 방에 들어갔어요.
 철수야, 영희야! 빨리 ㉣나와서들 인사 드려라.
 철수, 영희 : 예. (잠시 후, 나와서) 안녕하세요!
 손님 2 : 그래, 잘 있었니? 못 본 사이에 ㉤많이들 컸구나.

- ① ㉠ ② ㉡ ③ ㉢ ④ ㉣ ⑤ ㉤

[29~43] 통사론

출처: 07년 9월
연계: 수능특강 250p 1번

29. 문장에서 일부 문장 성분들을 생략하거나 보충하는 활동을 통해 '필요한 문장 성분'에 대해 탐구해 보았다. <보기>를 바탕으로 판단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ㄱ. 아이가 작은 침대에서 예쁘게 잔다.
 ㄴ. 학생들이 식당에서 점심을 먹는다.
 ㄷ. 그 아이는 예쁘게 생겼다.
 ㄹ. 작은 것이 아름답다.
 ㅁ. 우리도 언제 개통될지 모른다.

- ① ㄱ에는 문장 성분이 여러 개 있지만 필수적인 것은 주어와 서술어야.
- ② ㄴ에서 필수적인 문장 성분은 네 개야.
- ③ ㄷ을 보면 부사어도 필수적인 문장 성분이 될 수 있어.
- ④ 관형어는 일반적으로 생략될 수 있지만 ㄷ처럼 필수적인 경우도 있어.
- ⑤ ㅁ에는 필수적인 문장 성분이 빠져 있으니 서술어 '개통되다'의 주어를 보충해야 해.

출처: 14년 6월 B형
연계: 수능특강 250p 2번, 274p 6번

30. <보기 1>을 참고하여 <보기 2>와 같이 문장을 수정하였다. <보기 2>의 (가), (나)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고른 것은?

<보기 1>

정확한 문장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문장을 형성하는 규칙인 문법을 잘 지켜야 한다. ㉠주어, 목적어, 필수적 부사어 등 서술어가 필요로 하는 문장 성분이 빠져 있는 경우, ㉡주어와 서술어, 부사어와 서술어 등 문장 성분 간의 호응이 지켜지지 않은 경우, ㉢조사나 어미를 잘못 사용한 경우에는 문법성이 결여되어 바르지 않은 문장이 된다.

<보기 2>

원래의 문장 ⇒ 수정한 문장	고려한 사항
○ 이 장면은 연출된 것이니 반드시 따라 하지 마세요. ⇒ 이 장면은 연출된 것이니 절대로 따라 하지 마세요.	(가)
○ 우리는 타인의 인격을 존중해야 하고 나와 평등하다는 생각을 지녀야 한다. ⇒ 우리는 타인의 인격을 존중해야 하고 타인이 나와 평등하다는 생각을 지녀야 한다.	(나)

- | | |
|---------|---------|
| (가) (나) | (가) (나) |
| ① ㉠ ㉡ | ② ㉠ ㉢ |
| ③ ㉡ ㉠ | ④ ㉡ ㉢ |
| ⑤ ㉢ ㉡ | |

출처: 15년 수능 A형
연계: 수능특강 217p 1번, 수능완성 63p 1번

31. <보기>의 내용을 근거로 하여 잘못된 문장을 수정한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서술어의 자릿수는 문법적으로 정확하지 못한 문장을 수정하는 데 고려해야 할 중요한 기준이다. 서술어의 자릿수란 서술어가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문장 성분의 수를 의미하는데, 다음과 같은 예를 들 수 있다.

- 한 자리 서술어 : 꽃이 피었다.
- 두 자리 서술어 : 고양이가 취를 잡았다.
- 세 자리 서술어 : 동생은 나에게 책을 주었다.

서술어가 요구하는 문장 성분이 빠져 있으면 문법적으로 정확하지 못한 문장이 되므로 그 성분을 보충하여야 한다.

- ① 그들은 양식이 다 떨어지자 식량 공급을 요청했다.
→ 그들은 양식이 다 떨어지자 정부에 식량 공급을 요청했다.
- ② 문제는 우리가 예의를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 문제는 우리가 예의를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이다.
- ③ 나는 오늘 점심을 먹으면서 내 친구를 소개하였다.
→ 나는 오늘 점심을 먹으면서 내 친구를 누나에게 소개하였다.
- ④ 우리는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지금보다 강해질 것이다.
→ 우리는 그 일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지금보다 강해질 것이다.
- ⑤ 형은 이곳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어두울 수밖에 없다.
→ 형은 이곳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아 동네 지리에 어두울 수밖에 없다.

출처: 18년 수능
연계: 수능특강 259p 2번, 316p 14번

32. 다음은 부사어에 대해 탐구한 것이다. 탐구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 하늘이 눈이 부시게 푸른 날이다 ⇒ 절인 '눈이 부시게'가 부사어로 쓰였군.
②	• 함박눈이 하늘에서 펑펑 내리고 있다. ⇒ 부사격 조사가 결합한 '하늘에서'와 부사 '펑펑'이 부사어로 쓰였군.
③	• 그는 너무 현 차를 한 대 샀다. ⇒ 부사어 '너무'가 서술어 '샀다'를 수식하는군.
④	㉠ 영이는 엄마와 닮았다. / *영이는 닮았다. ㉡ 영이는 취미로 책을 읽는다. / 영이는 책을 읽는다. ⇒ ㉠의 '엄마와', ㉡의 '취미로'는 둘 다 부사어인데, ㉠의 '엄마와'는 ㉡의 '취미로'와 달리 필수 성분이군.
⑤	㉠ 모든 것이 재로 되었다. / *모든 것이 되었다. ㉡ 모든 것이 재가 되었다. / *모든 것이 되었다. ⇒ ㉠의 '재로'는 부사어이고 ㉡의 '재가'는 보어로서, 문장 성분은 서로 다르지만 서술어가 반드시 필요로 하는 성분이라는 점에서는 같군.

※ '*'는 비문임을 나타냄.

출처: 17년 6월
연계: 수능특강 251p 3번, 258p 1번

33. <보기>의 ㉠~㉣에 해당하는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가)~(다)는 관형절을 안은 문장이고 [A]~[C]는 안긴 문장인 관형절을 완결된 문장으로 바꾼 것이다. 이를 보면 (가)의 '동생', (나)의 '책', (다)의 '도서관'은 완결된 문장 [A], [B], [C]에서 뒤에 붙는 조사와 함께 각각 ㉠주어, ㉡목적어, ㉢부사어로 기능을 하고 있다.

(가) 어제 책만 읽은 동생에게 오늘은 쉬라고 했다.
[A] 동생이 어제 책만 읽었다.

(나) 아이가 읽은 책은 동화책이다.
[B] 아이가 책을 읽었다.

(다) 형이 책을 읽은 도서관은 집 근처에 있다.
[C] 형이 도서관에서 책을 읽었다.

- ① ㉠ 어제 결혼한 그들에게 나는 미리 선물을 주었다.
누나를 많이 닮은 친구를 우리는 오늘도 만났다.
- ② ㉠ 나무로 된 탁자에 동생이 낙서를 하고 있다.
그들은 시대에 뒤떨어진 생각을 여전히 하고 있다.
- ③ ㉡ 두 사람이 어제 헤어진 공원이 지금 공사 중입니다.
나는 어제 부모님이 시키신 일을 오늘에야 다 끝냈다.
- ④ ㉡ 친구가 나에게 준 옷이 나는 마음에 든다.
누나는 털실로 짠 장갑도 내게 주었습니다.
- ⑤ ㉢ 아이들이 운동장에서 공을 찬 주말을 기억해 보세요.
그는 관중이 쓰레기를 남긴 경기장을 열심히 청소했다.

출처: 18년 6월
연계: 수능특강 254p 1번

34. ㉠~㉣의 문장 성분과 문장 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 그녀는 따뜻한 봄이 빨리 오기를 기다린다.
㉡ 내가 만난 친구는 마음이 정말 착하다.
㉢ 피곤해하던 동생이 엄마가 모르게 잔다.
㉣ 그가 시장에서 산 배추는 값이 비싸다.

- ① ㉠과 ㉡은 체언을 수식하는 안긴문장이 있다.
- ② ㉢과 ㉣은 서술어의 기능을 하는 안긴문장이 있다.
- ③ ㉠은 명사절 속에 부사어가 있고, ㉡은 서술절 속에 부사어가 있다.
- ④ ㉠은 주어가 생략된 안긴문장이 있고, ㉢은 목적어가 생략된 안긴문장이 있다.
- ⑤ ㉢은 부사어의 기능을 하는 안긴문장이 있고, ㉣은 관형어의 기능을 하는 안긴문장이 있다.

출처: 15년 수능 A형
연계: 수능특강 254p 1번, 수능완성 53p 1번

35. 다음 ㉠, ㉡의 문장 성분과 문장 구조에 대한 설명이 옳은 것은? [3점]

<보 기>

㉠ 친구들은 내가 노래 부르기를 원한다.
㉡ 우리는 이 지역 토양이 벼농사에 적합함을 몰랐다.

- ① ㉠에는 부사어가 있지만 ㉡에는 부사어가 없다.
- ② ㉠에는 명사절이 안겨 있지만 ㉡에는 부사절이 안겨 있다.
- ③ ㉠에는 서술절이 안겨 있지만 ㉡에는 관형절이 안겨 있다.
- ④ ㉠의 안긴문장 속에는 관형어가 있지만 ㉡의 안긴문장 속에는 관형어가 없다.
- ⑤ ㉠의 안긴문장 속에는 목적어가 있지만 ㉡의 안긴문장 속에는 목적어가 없다.

출처: 15년 9월 B형
연계: 수능특강 253p 5번, 수능완성 217p 15번

36. <보기>의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영희 : 경준아, 선생님께서 다음 국어 시간에 있을 모둠 과제 발표는 내가 주도해서 ㉠준비하시라고 하셔.
경준 : 시인 소개 모둠 과제 말이지?
영희 : 응.
경준 : 그런데 어떤 시인을 주제로 발표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도 말씀 ㉡있으셨니?
영희 : 아니, 그건 시간이 날 때 내가 직접 선생님께 ㉢물어서 알아봐.
경준 : 아무래도 그래야겠어.
영희 : 그런데 선생님께서 저번 수업 시간에 김소월의 시가 ㉣자기의 애송시라고 ㉤말했잖아. 김소월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시인이기도 하니까 김소월의 시 세계를 주제로 하여 발표해 보는 건 어때?

- ① ㉠ : 주체가 '경준'이므로 '준비하라고'로 바꿔 말해야 한다.
- ② ㉡ : 주어가 '말씀'이므로 '있었니'로 바꿔 말해야 한다.
- ③ ㉢ : 뒷사람인 '선생님'께 묻는 것이므로 '여쭙서'로 바꿔 말해야 한다.
- ④ ㉣ : '선생님'을 높이는 것이므로 '당신'으로 바꿔 말해야 한다.
- ⑤ ㉤ : 주체가 '선생님'이므로 '말씀하셨잖아'로 바꿔 말해야 한다.

출처: 14년 6월 A형
연계: 수능특강 253p 5번

37. <보기>의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보 기>

높임법은 화자가 높이려는 대상이 누구인지에 따라 주체 높임법, 상대 높임법, 객체 높임법으로 구분된다. 주체 높임법은 주어가 나타내는 대상인 주체를 높이는 것이며, 상대 높임법은 대화의 상대인 청자를 높이거나 낮추는 것이고, 객체 높임법은 문장의 목적어나 부사어가 나타내는 대상인 객체를 높이는 것이다.

동생 : 학교 다녀왔습니다.
누나 : ㉠이제 오는구나.
동생 : 누나밖에 없어? ㉡아버지 안 계신 거야?
누나 : 응. 너 저녁 안 먹었지? ㉢아버지께 전화 드리고 얼른 나가자.
동생 : 무슨 일인데?
누나 : ㉣아버지께서 너 데리고 식당으로 오라셨어. ㉤할머니 모시고 저녁 먹으러 가자고 그러시더라.

- ① ㉠은 '-는구나'를 사용하여 상대인 동생을 높이고 있다.
- ② ㉡은 '계시다'를 사용하여 객체인 '아버지'를 높이고 있다.
- ③ ㉢은 '께'를 사용하여 주체인 '아버지'를 높이고 있다.
- ④ ㉣은 '께서'를 사용하여 객체인 '아버지'를 높이고 있다.
- ⑤ ㉤은 '모시다'를 사용하여 객체인 '할머니'를 높이고 있다.

출처: 14년 6월 A형
연계: 수능특강 217p 4번

38. <보기>를 참고하여, 학습 자료를 분석한 결과로 옳은 것은? [3점]

<보 기>

일반적으로 사동문은 주어가 다른 대상을 동작하게 하거나 특정한 상태에 이르도록 하는 문장을 가리킨다. 사동문은 어근에 접미사가 결합한 사동사나 어간에 '-게 하다'가 결합한 구성에 의해 만들어진다.

	A: 주동문	B: 사동문에 의한 사동문	C: '-게 하다'에 의한 사동문
㉠	동생이 숨는다.	누나가 동생을 숨긴다.	누나가 동생을 숨게 한다.
㉡	동생이 밥을 먹는다.	누나가 동생에게 밥을 먹인다.	누나가 동생에게 밥을 먹게 한다.
㉢	실내 온도가 낮다.	누나가 실내 온도를 낮춘다.	누나가 실내 온도를 낮게 한다.
㉣	동생이 공을 찬다.	(해당 사례 없음)	누나가 동생에게 공을 차게 한다.

- ① ㉠, ㉡을 보니, A의 주어는 C에서 동일한 문장 성분으로 나타나는군.
- ② ㉠, ㉢을 보니, A가 B로 바뀌면 서술어의 자릿수가 늘어나는군.
- ③ ㉡, ㉣을 보니, A가 B로 바뀌면 겹문장이 되는군.
- ④ ㉡, ㉣을 보니, A의 서술어가 타동사이면 대응하는 사동사가 없군.
- ⑤ ㉢, ㉣을 보니, A의 서술어가 형용사이면 사동문을 만들지 못하는군.

출처: 15년 6월 A형
연계: 수능완성 216p 14번

39. <보기>의 ㉠, ㉡에 해당하는 것은? [3점]

<보 기>

우리말의 용언 중에는 피동사와 사동사의 형태가 동일한 것이 있다. 예를 들어, '보다'는 사동사와 피동사가 모두 '보이다'로 그 형태가 같다. 이때 ㉠사동사로 쓰인 경우와 ㉡피동사로 쓰인 경우는 다음과 같이 문장에서의 쓰임을 통해 구별된다.

동생이 새 시계를 내게 보였다. (사동사로 쓰인 경우)
구름 사이로 희미하게 해가 보였다. (피동사로 쓰인 경우)

- ① ㉠ : 운동화 끈이 풀렸다.
㉡ : 아빠의 칭찬에 피로가 금세 풀렸다.
- ② ㉠ : 우는 아이가 엄마 등에 업혔다.
㉡ : 누나가 이모에게 아기를 업혔다.
- ③ ㉠ : 나는 젖은 옷을 햇볕에 말렸다.
㉡ : 동생은 집에 가겠다는 친구를 말렸다.
- ④ ㉠ : 새들이 따뜻한 곳에서 몸을 녹였다.
㉡ : 햇살이 고드름을 천천히 녹였다.
- ⑤ ㉠ : 형이 친구에게 꽃다발을 안겼다.
㉡ : 아기 꿈이 어미 품에 포근히 안겼다.

출처: 16년 6월 A형
연계: 수능특강 256p 3번

40. 담화 상황을 고려할 때, <보기>의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A : 어제 낮엔 많이 바빴니? 전화를 바로 끊더라.
 B : 아니야, 끊은 게 아니라 ㉠끊어진 거야. 바로 전화 못해서 미안해. 표정이 심각해 보이는데 무슨 일 있었어?
 A : 아니, ㉡저기, 심각한 건 아니고. 어제 점심에 도서관에서 만나기로 했잖아. 기다려도 안 오길래 말이야.
 B : ㉢아차! 내가 먼저 얘기하려고 했는데 깜빡했네. 가려고 했는데 ㉣못 갔어.
 A : ㉤자세히 말해 볼래?
 B : 동생이 갑자기 아파서 병원에 데리고 가야 했거든.
 A : 그런 일이 있었구나. 동생은 좀 괜찮니?

- ① ㉠ : 피동 표현을 사용하여 상황이 B의 의지와 무관하게 일어났음을 나타낸다.
- ② ㉡ : 지시 대명사를 사용하여 B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곳으로 관심을 유도한다.
- ③ ㉢ : 감탄사를 사용하여 A의 발화를 듣고 어떤 것을 갑자기 깨달았음을 나타낸다.
- ④ ㉣ : 부정 부사 '못'을 사용하여 B에게 일어난 상황이 불가피했음을 나타낸다.
- ⑤ ㉤ : 의문 표현을 사용하여 B에게 일의 까닭을 상세히 말해달라고 요청한다.

출처: 17년 9월
연계: 수능특강 257p 4번, 수능완성 189p 14번

41. <보기>의 ㉠~㉤에 쓰인 ㉠, ㉡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 기>

용언은 어간에 어미가 붙어 다양한 의미를 나타내며 활용된다. 어미는 ㉠선어말 어미와 ㉡어말 어미로 나뉜다. 어말 어미는 다시 종결 어미, 연결 어미, 전성 어미로 나뉜다. 용언의 활용형에서 선어말 어미는 없는 경우가 있어도 어말 어미는 반드시 있어야 한다.

㉠ 민수가 그 나무를 심었구나!
 ㉡ 저기서 청소하는 아이가 내 동생이야.
 ㉢ 그 친구가 설마 그 음식을 다 먹었겠니?
 ㉣ 그가 나에게 관한 책은 이미 읽은 책이다.
 ㉤ 주말에 바람은 불겠지만 비는 오지 않을 것이다.

- ① ㉠에는 과거 시제를 나타내는 '-었-'이 ㉠로 쓰였고, 감탄형 종결 어미 '-구나'가 ㉡로 쓰였다.
- ② ㉡에는 ㉠은 없고 동사의 현재 시제를 나타내는 관형사형 전성 어미 '-는'이 ㉡로 쓰였다.
- ③ ㉢에는 과거 시제를 나타내는 '-었-'과 주체의 의지를 나타내는 '-겠-'이 ㉠로 쓰였고, 의문형 종결 어미 '-니'가 ㉡로 쓰였다.
- ④ ㉣에는 ㉠은 없고 동사의 과거 시제를 나타내는 관형사형 전성 어미 '-은'이 ㉡로 쓰였다.
- ⑤ ㉤에는 추측의 의미를 나타내는 '-겠-'이 ㉠로 쓰였고, 대등적 연결 어미 '-지만'이 ㉡로 쓰였다.

출처: 18년 9월
연계: 수능특강 257p 4번, 287p 3번, 수능완성 189p 14번

42. 밑줄 친 말에 주목하여 <보기>의 ㉠~㉤에 대해 탐구한 결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 거기에는 눈이 왔겠다. / 지금 거기에는 눈이 오겠지.
 ㉡ 그가 집에 갔다. / 막차를 놓쳤으니 나는 집에 다 갔다.
 ㉢ 내가 떠날 때 비가 올 것이다. / 내가 떠날 때 비가 왔다.
 ㉣ 그는 지금 학교에 간다. / 그는 내년에 진학한다고 한다.
 ㉤ 오늘 보니 그는 키가 작다. / 작년에 그는 키가 작았다.

- ① ㉠을 보니, 선어말 어미 '-겠-'이 미래의 사건을 추측하는데 쓰이고 있군.
- ② ㉡을 보니, 선어말 어미 '-았-'이 과거 시제를 나타내지 않는 경우도 있군.
- ③ ㉢을 보니, 관형사형 어미 '-르'이 붙을 때 미래의 사건을 나타내지 않는 경우도 있군.
- ④ ㉣을 보니,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 '-느-'이 미래의 사건을 나타낼 때도 쓰이고 있군.
- ⑤ ㉤을 보니, 형용사에서 현재 시제를 나타낼 때 시제 선어말 어미가 나타나지 않고 있군.

출처: 16년 수능 A형
연계: 수능특강 257p 4번

43. <보기>의 ㉠~㉢에 해당하는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보조 용언 구성 '-고 있-'은 크게 두 가지 의미를 지닌다.

(가) 민수는 지금 떡국을 먹고 있다.

(나) 선생님은 너를 믿고 있다.

(다) 지혜는 모자를 쓰고 있다.

(가)에서처럼 ㉠'어떤 동작이 진행되고 있음'을 나타내기도 하고, (나)에서처럼 ㉡'어떤 상태가 지속되고 있음'을 나타내기도 한다. (가)의 '-고 있-'은 '-는 중이-'로 교체하여도 ㉠의 의미가 유지되지만, (나)의 '-고 있-'은 교체하면 부자연스러운 문장이 되거나 ㉡의 의미가 유지되지 않는다. 한편 (가), (나)에서는 특정한 문맥이 주어지지 않아도 그 의미를 확정할 수 있는 데 반해, (다)에서는 문맥이 충분히 주어지지 않으면 '-고 있-'이 ㉢두 가지 의미 모두로 해석될 수 있다.

- ① ㉠ A : 아빠 들어오실 때 형은 뭐 하고 있었니?
B : 형은 양치질을 하고 있었어요.
- ② ㉡ A : 오빠가 너한테 화가 많이 났나 봐.
B : 오빠는 지금 날 오해하고 있는 것 같아.
- ③ ㉡ A : 내일이 고모님 생신이라고 하네.
B : 아, 나 그거 이미 알고 있어.
- ④ ㉢ A : 너 안경 잃어버렸다며? 괜찮아?
B : 눈이 아주 나쁘진 않아서 안경 벗고 있어도 괜찮아.
- ⑤ ㉢ A : 저 중에 신입 사원이 누구야?
B : 저기에 있잖아. 넥타이를 매고 있네.

[44~45] 중세 국어

출처: 14년 수능 B형
연계: 수능완성 58p 3번, 240p 15번

44. <보기>의 (가)를 바탕으로 (나)를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가) 15세기 국어의 음운과 표기의 특징

- ㉠ 자음 ‘ㄷ’과 ‘ㅂ’이 존재하였다.
- ㉡ 초성에 오는 ‘ㅃ’은 ‘ㅂ’과 ‘ㄷ’이, ‘ㅆ’은 ‘ㄷ’과 ‘ㅅ’이 모두 발음되었다.
- ㉢ 종성에서 ‘ㄷ’과 ‘ㅅ’이 다르게 발음되었다.
- ㉣ 평성, 거성, 상성의 성조를 방점으로 구분하였다.
- ㉤ 연철 표기(이어적기)를 하였다.

(나) 나랏 :말싸·미 中·동·國·궐·에 달·아 文·문·字·중·와·로 서르
스·뫼·디 아·니·힐·썸 ·이런 전·츠·로 어·린 百·백·姓·성·이 니르
고·져 ·흙 ·배 이·셔·도 ㅁ·춤·내 제 ·ㅃ·들 시·러 퍼·디 :물·흙
·노·미 하·나·라 ·내 ·이·를 爲·왕·호·야 :어·엿·비 너·겨 ·새·
로 ·스·를 여·들 字·중·를 ㅁ·그·노·니 :사·름 :마·다 :히·예 :
수·비 니·겨 ·날·로 ·뿌·메 便·便·安·안·키 호·고·져 흙 썸 르·미
나·라

- ① ㉠을 보니, ‘수·비’에는 오늘날에는 없는 자음이 들어 있군.
- ② ㉡을 보니, ‘ㅃ·들’의 ‘ㅃ’에서는 두 개의 자음이 발음되었군.
- ③ ㉢을 보니, ‘어·엿·비’에서 둘째 음절의 종성은 ‘ㄷ’으로 발음되었군.
- ④ ㉣을 보니, ‘히·예’의 첫 음절과 둘째 음절은 성조가 달랐군.
- ⑤ ㉤을 보니, ‘뿌·메’에는 연철 표기가 적용되었군.

출처: 18년 9월

연계: 수능특강 225p 2번, 수능완성 165p 15번

45. <보기 1>의 중세 국어의 특징을 바탕으로 <보기 2>의 ㉠~㉤를 탐구하는 활동을 수행하였다. 학생들이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1>

- ㉠ 설명 의문문과 판정 의문문에서 쓰이는 종결 어미가 서로 달랐다.
- ㉡ 체언에 결합하는 조사의 형태는 모음 조화에 따라 결정되었다.
- ㉢ 높임의 호격 조사로서 현대 국어에 없는 형태가 있었다.
- ㉣ 선어말 어미의 결합 순서가 현대 국어와 다른 경우가 있었다.
- ㉤ 듣는 이를 높이기 위한 선어말 어미가 사용되었다.

<보기 2>

- ㉠ 으슴 마를 니르느뇨 [무슨 말을 말하느냐?]
- ㉡ 저으며 늘구미 잇느녀 [젊으며 늙음이 있느냐?]
- ㉢ 虛空과 버를 보더시니 [허공과 별을 보시더니]
- ㉣ 世尊하 내 堂中에 이셔 몬져 如來 보습고 [세존이시여, 내가 집 안에서 먼저 여래 뵈고]

- ① ㉠의 ‘니르느뇨’와 ㉡의 ‘잇느녀’를 비교해 보면, ㉠을 확인할 수 있군.
- ② ㉠의 ‘마를’과 ㉢의 ‘버를’을 비교해 보면, ㉡을 확인할 수 있군.
- ③ ㉣의 ‘世尊하’를 보면, ㉢을 확인할 수 있군.
- ④ ㉢의 ‘보더시니’를 보면, ㉣을 확인할 수 있군.
- ⑤ ㉣의 ‘보습고’를 보면, ㉤을 확인할 수 있군.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 하시오.

✓How&Why 국어&논술 연구소

02-6227-9501

010-6297-9501

www.howandwhyedu.com

✓국어&논술 공부 상담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How&Why

✓국어&논술 질의 응답

메가스터디 최인호 선생님 질문&답변 게시판

2019 EBS 수능특강 · 수능완성 연계 기출문항 정답

1	①	2	③	3	①	4	②	5	⑤
6	①	7	④	8	⑤	9	⑤	10	⑤
11	④	12	④	13	①	14	③	15	⑤
16	①	17	③	18	②	19	②	20	④
21	②	22	①	23	③	24	①	25	③
26	④	27	③	28	③	29	②	30	③
31	②	32	③	33	③	34	②	35	⑤
36	②	37	⑤	38	②	39	⑤	40	②
41	③	42	①	43	④	44	③	45	⑤

상위 1%
학생들의
국어 1등급
비법이
궁금해?

BLACKLABEL

본 문제지에 실린 모든 내용에 대한 저작권은 하우앤와이 국어&논술 연구소에 있습니다.
하우앤와이 국어&논술 연구소의 허락 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무단으로 복사, 복제, 제본, 2차적
저작물 작성 등으로 이용하는 일체의 행위는 관련법에 따라 금지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